

에베소서에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연합된 영 안에 생활함
(3)

성경: 엡 4:3-4, 23-24, 5:18-21, 6:17-18

- V.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신 새롭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새 예루살렘처럼 새로워질 수 있다—딤후 3:5, 엡 4:23-24, 고후 4:16, 골 3:10-11.
- A. 우리의 연합된 영은 우리의 생각 안으로 퍼짐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점유하여 우리의 생각의 영이 되어야 한다.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을 더 관통하고 적시고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할 것이다—빌 2:5, 엡 4:23, 고전 2:16.
 - B.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 생활의 일들에 관한 모든 낡은 관념을 제거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빛 비춤에 의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시 119:105, 130, 딤후 3:15-17, 신 17:18-20.
 - C.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신선한 공급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환경의 고난에 의해 우리의 겉사람이 소모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롬 12:2, 고후 3:18, 4:16.
 - D. 우리는 생각의 허망함을 따라 살지 말고 생각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매일 단체적인 한 새사람의 생활을 하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특성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영의 하나로 채워진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이다—엡 4:3-4, 17-18, 23-24.
- VI.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아름답게 하시고 신부를 예비하시는 영으로 채워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집으로 예비되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엡 5:18, 26-27, 사 60:7, 19, 62:3, 창 1:26.
- A.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러야 한다—엡 5:18, 3:19.
 - 1. 몸이 술로 취하는 것은 우리를 방탕하게 하지만, 영이 충만해지면 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로 넘쳐흐르게 되고 서로 복종하게 된다—엡 5:18-21.
 - 2. 이러한 내적 충만에서부터 복종과 사랑과 순종과 관심 등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각종 미덕들이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과 그분의 인성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된다—엡 5:22-6:9, 참조 출 28:2.
 - B. 우리는 반드시 생명 주시는 영,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야 한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있다—엡 5:26-27, 계 2:7.
 - 1.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를 예비하는 것이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바로 교회 안으로 조성되어 들어와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나온다—계 19:7-9, 참조 사 28:5, 시 27:4.
 - 2.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 거룩하게 하시며,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아름답게 되고 있다—엡 5:26.
- a.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의 물이신 그 영이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요 6:63.
 - b.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logos)’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말씀인 ‘레마(rhema)’이다.
 - c.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은 그 영이다. 그분의 말씀하심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다—요 6:63, 엡 6:17.
 - d. 생명 주시는 영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즉각적이고 살아 있는 현재의 말씀을 항상 주심으로써, 신진대사적으로 옛 것을 씻어내시고 그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시어 내적 변화를 가져오신다.
3. 그렇게 씻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아름답게 되어, 그분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부, 흠이나 결함이 없는 신부가 된다—계 19:7, 참조 아 6:13, 8:13-14.

VII.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죽이시는 영을 체험해야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대적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죽임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그 영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사탄과 죄와 사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엡 6:17-18, 롬 5:17, 창 1:26.

- A.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은 양육을 위한 것으로서 신부를 아름답게 하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은 죽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적인 전사인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엡 6:10-18.
- B. 우리는 반드시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엡 6:17-18.
 1. 우리는 살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그 영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그 영은 죽이는 검이 되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균’ 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죽여, 우리가 건강한 몸의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죽이는 검이 되는 그 영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교회 생활 안에 지켜질 길이 없을 것이다.
 3.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대적을 죽이고, 미움, 질투, 교만, 의심 등과 같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죽인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결국에는 최악의 대적이자 몸의 원수인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VIII.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하여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몸과 ‘소홀히 여겨진’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베소서에 제시된 대로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살고 몸의 유일한 하나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지켜지는 것이다—요 4:24, 엡 4:3-4, 23.